

한형조 무문관 탐방

51

마조의 딱지돈 ③



그림·이준석

이 법계(法界)의 해인 삼매(海印三昧)를 선가는 다양하고 개성적인 상징과 역설을 통해 엿보인다. 그것은 '우물이 나귀를 엿보는' 세계이며, '들계집이 아이를 낳는' 세계이며, '알산이 물 위로 가는' 세계이며, '애야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는' 세계이며, '춘향이 술을 마셨는데 이 도령이 취하는' 세계이며, '물 앞의 잣나무'의 세계이며, '불성이란 없는' 세계, '부처도 태어나지 않고 말마도 건너지 않은' 세계이며, '마음이 곧 부처'인 세계, 또 '마음이 부처가 아닌' 세계이며, '마음도 부처도 아무것도 아닌' 세계이다. 언설에 붙잡히면 실재를 놓친다. 양귀비가 소옥을 부를 때 등장하는 것은 숨겨놓은 난궁인 것을,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거나 모순되어 보이는 이 말들은 기실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마조는 말했다. "색즉시 공(色卽是空) 아닌가, 삶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을 알겠는가. 그렇다면 일상의 공간에서 때가 되면, 옷을 걸치고 종이 치면 밥 먹으러 간다. 같이 성스러운 태(胎)를 기르고, 진정한 자유의 흐름(任運)을 얻는다. 이때에 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질투와 시기, 선망과 기대, 욕망과 좌절의 흔적이 없을 때, 일상적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우리가 유정 무정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너, 너, 우리, 그들 등과 같은 분별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티베트의 고승 칼무 린포체(Kalu Rinpoche·1905~1989)는 아주 단순하지만 심원한 뜻이 담긴 시를 남겼다.

당신은 사물의 감각적인 느낌과 미망(迷妄) 속에서 살아간다. 그 삶은 현실이지만 당신은, 자신도 현실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애초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일 수도 있는 당신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팔정도(八正道)의 가르침이다.

그는 이 시에서 우리에게 바른 행동의 토대가 되는 미덕은 해를 끼치지 않는 과정에서 나오며 불가사의 하면서도 실제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다시말해 우리의 삶은 유정 무정물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각(知覺)에서 나오는 것이며 경험의 세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가사의하며 실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12



재적이냐는 것이다. 부처님은 심신(心身), 말, 마음 등 모든 것의 연관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다. 팔정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덕-어떻게 말할 것인가? 친절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것인가?는 우리가 더욱 행복할 수 있게 해

주는 방편이다. 정당하고 진실한 행동,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명상수행하며 정심(靜心)을 유지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방편)이 팔정도의 길이며 우리에게 즐거움과 강인한 수행력을 안겨준다.

부처님은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따라서 수행이 우리가 결코 떠날 수 없는 이 세간(世間)에서 아함사(해를 끼치지 않는 것)를 배우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고민의 과정이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진하라. 비구여! 자비의 세계와 인류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소리높여 외쳐라. 비구여! 놀라운 불법과 너의 삶이 배우는 신성함, 완벽함, 순수함을”이라는 교훈을 주었다.

재가불자들이여! 우리의 주요 수행은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수행이 무엇이나 질문을 받으면 아마도 깨달음을 향한 길이라고 대답하겠지만, 이 길은 항상 미덕과 함께 있다. 따라서 수행이 우리가 결코 떠날 수 없는 이 세간(世間)에서 아함사(해를 끼치지 않는 것)를 배우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는 고민의 과정이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사람은 정진터에서 수천의 군사와 싸워 이겼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자신과 싸워 승리를 얻었고, 더욱 위대해졌다. 왜냐하면 타인(他人)이 아닌 자신을 다스리고 수행해, 진정한 자유를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을 바로 세우고 바른 행동을 실천할 때 진정한 강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에서는 명예롭고 정직함에서 오는 즐거움 뿐만 아니라 또다른 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힘을 적절히 사용하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고 놀라운 수행력을 견지할 수도 있다.

바른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길러야 한다. 먼저 유정 무정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재력'이다. 이때 자신이 엄매(嚴邁)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자비심을 가지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긍정적인 사고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한 사람이 "부처님 너무 어렵습니다. 가르침의 요지를 간단히 설명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좋다.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삼가고 너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을 하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요지다"라고 대답했다. 이 세상의 유정 무정물에 마음을 쓰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평상심이 道, 오염시키지 말라”

초월적 실재 없어 “진리 찾겠다” 또다른 지옥업

아무런 두려움이나 공포없이, 욕망의 흔적과 조바심 없이 관찰할 수 있을 때, 그곳이 곧 구원이고 법계이다. 진리란 피곤하면 높고 졸리면 지는 것일 뿐, 이밖에 무슨 특별한 소식은 없다. 오늘 지은 업이 마음의 창고(來藏)에 아무런 찌꺼기나 흔적(種子)을 남기지 않고 또 내일 다가올 일을 걱정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아무 부처이다. 불교는 특이한 행동이나 남다른 특장, 혁명이나 성취의 열정을 고취하지 않는다. 반대하지도 않는다. 반대는 또 다른 분별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마조는 말한다. "도(道)는 굳이 익힐 필요가 없다. 다만 오염시키지 않으면 된다. 무엇을 오염이라 하는가. 생사(生死)를 의식하여 조작하고 선택하는 일체가 그것이다. 도와 곧바로 만나고 싶든가,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平常心)이다. 무엇을 일러 평상심이라 하는가. 인위적 조작과 주관적 가치 판단이 없고, 의도적 선택이 없는 것. 존재에 대한 고착이나 방기가 없고, 진리에 대한 환상도 없는 바로 그곳을 가리킨다. 경전에 말하지 않았던가. 범부의 행(行)도 아니고 성인의 행도 아닌 것, 그것이 보살행이라고. 다만 이렇게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 상황에 따라 응징해 나가는 것이 바로 도이고 그 세계가 바로 법계이다."

아무런 내적 갈등과 혼란을 겪지 않는다. 그 안한(安閑)의 아타락시아 속에서 주인공은 스스로를 의식하지 않는다. 불교는 바로 그 자리를 꿈꾼다. 어느 시인은 "내가 풍경이 되어 피어날 때 그때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라고 읊었다. 산책길에 문득 핀 한 송이 꽃을 볼 때, 그때 보는 나와 보이는 꽃은 분리되지 않는다. 오직 보는 과정만이 있다. 내가 그 삼매(三昧)에서 벗어나 꽃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쓰다말고 나온 논문을 떠올린다면 그때 전일(全一)의 경화는 깨어지고, 그와 함께 자아는 실제(實際)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 본리는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이미지(相)를 낳고 이 분열된 이미지들이 착종하고 갈등하여 혼란과 고통이 증폭된다. 그렇다. 부처를 자유롭게 하자면, 모든 인위적 형식과 타율적 규율을 치워주어야 한다. 그때 정신은 자신의 자유로운 운동을 구가한다. 본질과 이원화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은 레세페르의 창공자자(猖狂自恣)로 이어지지 않고 자발적 힘의 불사의(不思議)한 공능(功能)을 회복한다. 거기서 우리는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를 무위(無爲) 또는 무공용행(無功用行)이라 한다. 진리를 찾겠다는 것조차, 진리를 위해 살겠다는 것조차 또 다른 지옥업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56

플러스 사고

김용운

세포는 ON, OFF 두 가지 선택을 하는 (0, 1)의 2진법의 구조이며, 인생을 거대한 건반을 갖는 피아노에 비유할 수 있음을 말했다. 이 인생 피아노가 연주할 수 있는 곡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다 가고, 또 앞으로 등장하는 전 인류의 수보다 더 많다. 또한 앞으로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인생의 묘미가 있다.

공자는 "사람이 이성을 대하는 것과 같은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젊은 사람 만나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발이 무거워지는데 애인을 만날 때는 날아가고 싶은 심정으로 달려간다. 공자는 그러한 애인을 만나는 마음으로 학문을 대하면, 안되는 공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흥망사에 관통하는 진리는 어려서부터 성을 자극해 온 민족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는데 반해, 학문을 숭상하고 정신생활을 중시하는 민족은 존속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일부 열대 지방에서처럼 어려서부터 온몸을 흔들며 성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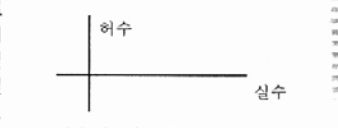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0

극을 일상화하는 곳에서는 문명이 발전할 수 없는 미개의 상태로 있다. 한국이 어려운 역사를 지냈음에도 문명국으로써 존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학문을 숭상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성은 본능이기에 누구나 쉽게 자극을 받는다. 그것을 억제하여 남은 에너지를 학문이나 정신 생활에 쏟을 때 성숙한 인격이 형성되며 민족적으로는 문명을 꽃

피우게 된다. 필자는 인생이 거대한 피아노임을 거듭 말한다. 그 가운데 성에 관한 부분만을 계속 두드린다면 정신의 건반은 계속 잡히고, 결국엔 퇴화되어 버리는 것이다. 요컨대 ON과 OFF의 선택이 다양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이며, 쉬운 말로는 '플러스적 발상'을 하는 것이다. 플러스적 사고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도 '만사는 마음먹기에

계는 수세계의 일부에 불과하다. 불교의 마음의 철학은 플러스적 사고의 전환을 의미한다.



실수의 세계를 현실의 물질적인 세계이며, 마음의 세계는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허수의 세계이다. 같은 실수일지라도 그 뒤에 붙는 허수의 위치에 따라 전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유전자가 신비스러운 움직임을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마음(허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유전자를 담고 있는 세포는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데, 유전자의 세계는 그보다 한 단계 차원이 작은 극미의 세계에 있다. 그 방대한 유전자의 수 가운데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겨우 10% 정도도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는 마음의 세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눈부신 과학의 성과에 매여 그것만을 주목할 때, 그 범위를 좁게 보고,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수의 세계를, 실수만으로 보고 있을 때는 차원높은 복잡한 세계를 외면했다. 마음 세계, 특히 플러스적 사고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일은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학의 시대에 심각한 폐단은 모든 것을 합리의 틀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이다. 과학은 실증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단 이 사고에 얽매게 되면 합리의 틀을 초월하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의 엄밀함을 보는 눈이 없어지는 것이다. 물질적 현상은 표면상 합리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물질적 관계를 일으키는 요소에 마음의 세계가 있다. 플러스적 사고로 유전자를 자극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면으로 돌리는 것이다. 복소수의 입장에서 보면 실수의 세

과학은 실증주의를 전제

연기의 엄밀 보는 눈 열려야

불교의 '일체 유심조' 지혜

긍정적 사고 전환 도와

플러스적 발상을 하는 것이다. 플러스적 사고는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도 '만사는 마음먹기에

다웠다'는 불교적인 지혜가 요청된다.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도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ON으로 돌릴 기회가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건은 연기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또 하나의 연기의 씨가 되어 다음 순간의 일을 결정한다. 가령 지금 병에 걸려서 병실을 누워 있는 상태를 가정해 보자. 돈도 없고, 활동도 못하니 불행하기

에 있음으로써 조용히 신변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평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인간관계와 미래의 설계를 검토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학의 시대에 심각한 폐단은 모든 것을 합리의 틀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이다. 과학은 실증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단 이 사고에 얽매게 되면 합리의 틀을 초월하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의 엄밀함을 보는 눈이 없어지는 것이다. 물질적 현상은 표면상 합리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물질적 관계를 일으키는 요소에 마음의 세계가 있다. 플러스적 사고로 유전자를 자극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극면으로 돌리는 것이다. 복소수의 입장에서 보면 실수의 세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언제 어디서든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민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분사 조성중
- 108번 오송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옥수 합장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지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한국의 불가사의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